*영어어문교육 9*권 1호 2003년 여름

영어 명사적 관계절의 개념도식에 의한 의미 기술*

조 길 호
(청운대학교)

Cho, Kil-Ho (2003). A description of English nominal relatives by conceptual graph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9*(1), 173-187.

This paper proposes a semantic description of the English nominal relatives with a knowledge representation framework of Conceptual Graphs(CGs), which is a computer-oriented form of interlanguage from the Conceptual Structures Theory. This paper focuses on the difference between definite and universally quantified meaning of nominal relatives, on the compound relative clauses, and also on the difference between nominal relative clauses and interrogative clauses.

[nominal relatives/free relatives/definite description/universal quantifier/conceptual graphs, 명사적 관계절/자유관계절/한정기술/보편양화사/개념도식]

Ⅰ. 서 언

이 논문은 명사적 관계절(nominal relatives) 또는 자유관계절(free relatives)이라 불리는 영어 비제한적 관계구문에 대한 의미기술을 개념도식을 통해 기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영어 명사적 관계절의 의미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간략히 살펴보고, 다음으로 영어 명사적 관계절의 의미를 개념도식을 이용하여 기술할 것이다. 개념도식으로 명사적 관계절을 기술함에 있어서 우선, 명사적 관계절이 한정의미와 보편양화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보일 것이며, 다음으로 양보의 의미를 갖는 복합관계절을 살펴볼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명사적 관계절의 의미를 특정/비특정적 비한정 기술로 보는 견해와는 달리 명사적 관계절을 한정기술로 보고 이러한 한

*이 논문은 2002년 청운대학교 교비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정적 의미를 개념도식에 도입하고자 한다. 또한 의문사절과 명사적 관계절 사이의 의미차이가 개념도식을 통해서 기술함으로써 기존의 논리적 의미기술 방법들에서 볼 수 있는 표기상의 복잡성을 없이 그 의미가 간단하고 명료하게 설명될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

II. 영어 명사적 관계절

관계절은 일반적으로 명사구를 수식하는 절이며, 수식되는 그 명사구를 관계절의 머리어(head)라고 부른다. 그러나 다음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머리어가 없는 명사적 관계절이 있다.

(1) You should return what you have finished reading to the library.

이러한 명사적 관계절, 즉 머리어 없는 관계절(headless relatives)을 독립관계절 또는 자유관계절이라고도 부른다.

명사적 관계절이 지니는 의미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Quirk 외(1985: 1059)는 일반적으로 wh-요소에 'ever' 접미사가 없으면 특정(specific) 의미를 나타내고, 'ever'접미사가 붙으면 즉, 복합관계절(compound relative clauses)이면, 비특정(non-specific) 의미를 나타낸다고 본다.

Quirk 외는 자유관계절의 의미를 특정/비특정 비한정기술(indefinite description)을 통해 설명하는 반면, 최근의 많은 연구들, 예를 들어 Jacobson(1995)과 Dayal(1995) 등은 자유관계절을 한정기술(definite description)로 본다. 비록 'ever'의 존재유무에 의해 특정한 해석이 얻어질 수 있지만, 그러한 상응관계가 항상 유지되지는 않는다. Jacobson이 지적한 바, 다음 (2)와 (3)을 본다면, 'ever'가 없는 단순 명사적 관계절을 한정사로, 'ever'가 있는 관계절을 보편양화사로 분석할 수 있을 듯 보인다. 그러나 이어지는 예문 (4)와 (5)의 예들은 그 역을 보여줌으로써 반드시 그러한 상관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2) I ordered what he ordered for dessert.
(=the thing he ordered for dessert)
(3) John will read whatever Bill assigns.
(=everything/anything Bill assigns)
(4) Do what the baby-sitter tells you.
(=everything the baby-sitter tells you)
(5) Everybody who went to whatever movie the Avon is now showing said

it was boring. (=the movie the Avon is now showing)

그러므로 Jacobson은 명사적 관계절이 최대성(maximum)의 특성을 지닌 보편양화사적 해석과 유일성(uniqueness)의 특성을 지닌 한정적 해석 둘 다를 허용한다는 점을 주목하고, 명사적 관계절이 그 기술을 만족시키는 유일한 최대실존체(unique maximal entity)를 지시하는 한정기술이라고 봄으로써 명사적 관계절이 그 두 해석을 모두 가질 수 있다고 본다.

Dayal(1997)은 명사적 관계절이 한정기술임을 Hindi어의 예를 통해 간접적인 증거를 보여주며, 아울러 그 직접적인 증거로서 다음과 같은 예들을 제시한다.

(6) a. I did nearly/almost everything/anything you told me to do.
b. I did *nearly/*almost whatever you told me to do.
c. I don't like everything/*what/*the things Sue ordered but I like most of them.

위 (6a)와 (6b)는 보편양화사를 식별하기 위한 진단방법으로서의 nearly/almost에 의한 수식의 경우를 보여주며, (6c)는 부정(negation)이 보편양화사와 관련하여 넓은 영향권을 갖는 반면, 한정사나 명사적 관계절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렇듯, Jacobson(1995)과 Dayal(1997)은 명사적 관계절을 유일성(uniqueness) 이라는 특성을 지니는 한정기술로 본다. 다시 말해서, 단수(atom)의 요구가 만족되며, 복수(plurality)의 경우에는 그 기술을 충족시키는 최대 개체들(maximal individuals)에 의해 유일성이 만족된다는 것이다.

한편, Iatridou and Varlakosta(1996)는 'ever'가 없는 단순 명사적 관계절과 'ever'가 있는 관계절의 특성을 다음의 예를 통해 보여준다.

(7) a. What(ever) Mary bought was expensive.
b. What(*ever) Mary bought was Barriers.

즉, (7a)에서는 'ever'관계절이 <<e,t>,t> 유형의 보편양화사이며, <e,t> 유형의 동사구를 논항으로 취하므로 허용되나, (7b)에서는 e유형인 단순 명사적 관계절은 동사구에 대한 논항으로 가능하지만 <<e,t>,t> 유형인 'ever' 관계절은 불가능함을 보여줌으로써 단순관계절은 한정적이며, 'ever'관계절은 보편적(universal)임을 설명한다.

이러한 최근의 연구들을 통해서 볼 때, 명사적 관계절을 한정기술로 보는 것이 일반적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Dayal(1997)은 비록 특정의미의 비한정기술(specific indefinite)이 유일성과 관련하여 한정기술과 같을 수 있으나 이들은 서로 다른 친숙성 조건(familiarity requirement)을 필요로 하므로 다음 (8)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ever'

관계절은 한정기술로 보아야 한다고 언급한다. 즉, 이미 앞서 지시된, 친숙한 어떤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는 비한정 기술이 아니라 한정기술이 사용되어야 하므로 (8b)의 *whatever she bought*가 한정기술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8) a. Mary bought something$_i$. [Something she bought]$^*_i$ was expensive.
b. Mary bought something$_i$. [Whatever she bought]$_i$ was expensive.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명사적 관계절을 한정기술로 간주하고자 하며, 아울러 'ever' 관계절이 갖는 보편양화사적 성격을 나타내기 위하여 한정기술 표지 #에 덧붙여 보편양화사 표지 ∀를 도입할 것이다.

III. 영어 명사적 관계절의 개념도식

1. 한정의미와 보편양화적 의미

명사적 관계절은 명사가 올 수 있는 모든 자리에 올 수 있다. 그리고 명사적 관계절 안의 wh-요소는 주어, 직접목적어, 간접목적어, 동격어구, 주격보어, 목적격 보어, 부사적 어구, 또는 전치사의 보어로 기능을 한다. 다음 (9)의 예를 살펴보자.

(9) She tasted what Mary recommended. (... the thing(s) which Mary recommended)

Jacobson(1995)에 따르면, *what Mary recommended* 같은 명사적 관계절은 Mary가 추천한 최대복수 실존체들의 집합(the set of maximal plural entities that Mary recommended)을 의미한다. 만일 Mary가 단지 하나의 실존체만을 추천했다면, 그 명사적 관계절은 단수 한정사와 동일할 것이며, 만일 하나 이상이라면, Mary가 추천한 모든 실존체로 이루어진 집합을 의미할 것이다.

이러한 두가지 의미를 다음과 같은 개념도식으로 표기할 수 있다.

(10) [FEMALE: #] ← (AGNT) ← [TASTE] → (OBJ) → [(λx)[⊤: *x]
← (OBJ) ← [RECOMMEND] → (AGNT) → [PERSON: Mary]: #{*}]
(11) [FEMALE: #] ← (AGNT) ← [TASTE] → (OBJ) → [(λx)[⊤: *x]
← (OBJ) ← [RECOMMEND] → (AGNT) → [PERSON: Mary]: #]

위 예문 (9)에서 선행사 *the thing(s)*는 관계절의 제한을 받지만 개체가 밝혀지지 않은 것이므로, 개념유형 중 유형격자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가장 일반적인 유형 [⊤]로 나타낸다. 한정의미로 사용되는 *what*은 선행사의 단·복수 개념을 화맥을 통하지 않고는 미결정의 상태로 두기 때문에, (9)가 *the things*를 의미한다면 (10)과 같이 λ-표현의 지시부에 #{*}기호로 표기하며, *the thing*을 의미한다면 (11)과 같이 #로만 표기한다. (10)의 도식은 '[TASTE]의 (AGNT)는 [FEMALE]이며, (AGNT)인 [MARY]가 [RECOMMEND]하는 (OBJ)인 x의 집합이 있고, 그 한정적인 복수집합이 [TASTE]의 (OBJ)'임을 말한다. (11)은 복수집합표시 {*}를 제외하고 (10)과 같다.

사실상, 많은 명사적 관계절이 중의적(ambiguous)이다. Riemsdijk(2000)은 다음 (12)는 (12b) 또는 (12d)로 해석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에 대한 개념도식은 각각 (12c)와 (12e)로 표기될 수 있다.

(12) a. You should return what you have finished reading to the library.
b. You should return that (the thing, sc. the book) which you have finished reading to the library.
c. [RETURN]-
→(AGNT)→ [PERSON:#you]
→(TO)→[LIBRARY:#]
→(OBJ)→[(λx)[⊤:*y]←(OBJ)←[READ]←(RSLT)←[FINISH]→
(AGNT)→[*y]:#]
d. You should return anything(whatever it is) which you have finished reading to the library.
e. [RETURN]-
→(AGNT)→ [PERSON:#you]
→(TO)→[LIBRARY:#]
→(OBJ)→[(λx)[⊤:*y]←(OBJ)←[READ]←(RSLT)←[FINISH]→
(AGNT)→[*y]:#∀]

다음 예문 (13)의 경우도 한정의미와 보편양화사적 의미기술에 있어서의 차이를 보여준다.

(13) a. Quality is whatever counts most. ('...anything that...')
b. [QUALITY: *y]
[(λx)[⊤: *x] → (ATTR) → [COUNT] → (DEGR) → [MOST]:#∀*y]
c. Quality is what counts most.('...the thing that counts most')
d. [QUALITY: *y]
[(λx)[⊤: *x] → (ATTR) → [COUNT] → (DEGR) → [MOST]: #*y]

위 (13a)와 (13c)는 둘 다 명사적 관계절이지만 (13a)의 선행사는 'any'의 의미이므로 λ-표현의 지시부에 #∀로 표기하였으며, (13c)는 단순한정의 의미이므로 #로 표기하였다.

다음은 관계형용사로 쓰인 *what*의 예를 보기로 한다.

(14) a. I took what books she gave me.('...(all) the books that she gave me.')
b. [PERSON: #I*x] ← (AGNT) ← [TAKE] → (OBJ) → [(λy) [BOOK: *y]
← (OBJ) ← [GIVE] → (AGNT) → [FEMALE: #]: #∀]
↳(BENF) → [*x]
c. [PERSON: #I*x] ← (AGNT) ← [TAKE] → (OBJ) → [(λy) [BOOK: *y]
← (OBJ) ← [GIVE] → (AGNT) → [FEMALE: #]: #]
↳(BENF) → [*x]

위 (14a)의 *what*은 *book*을 한정하는 관계형용사로서 'all the'의 한정의미로 사용될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14b)와 같이 λ-표현의 지시부에 #∀로 표기하고 'the'만을 뜻할 경우는 (14c)와 같이 한정표지인 #표시만을 표기한다. 위 (14)의 예문이 갖는 중의성에 반해, 'whatever'형태는 아래 (15)에서 볼 수 있듯이 언제나 보편양화적 의미로 사용된다.

(15) a. I took whatever books she gave me.('...any books that she gave me.')
b. [PERSON: #I*x] ← (AGNT) ← [TAKE] → (OBJ) → [(λy) [BOOK: *y]
← (OBJ) ← [GIVE] → (AGNT) → [FEMALE: #]: #]
↳(BENF) → [*x]

관계형용사 'what'은 또한 특정의미로서 '적다'는 의미를 갖는 경우가 있다. 아래 (16), (17)은 이에 대한 예문이다.

(16) a. What friends she has are out of the country.
b. = The few friends she has are out of the country.
c. [(λx)[FRIEND: *x] ← (POSS) ← [FEMALE: #]: #{*}few] →(STAT) →
[STAY] → (OUT-OF) → [COUNTRY: #]

위 (15a)의 *what friends*는 'what few friends'와 같이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개념도식에서 λ-표현의 지시부에 few의 의미를 지니는 복수한정표지인 #{*}few를 도입하였다.

다음 예문은 관계형용사 'what'가 양적으로 '적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17) a. He lost what money he had in the pocket.
b. = He lost the little money he had in the pocket.
c. [(λx)[MALE: #*y] → (POSS) → [MONEY: little*x] ←(CONT) ← [POCKET: #]: #] ← (OBJ) ← [LOSE] → (AGNT) → [*y]

위 (17a)에서 *what money*는 'what little money'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money*가 불가산 명사이므로 양의 표기 방법 중의 하나인 측량축약(measure contraction)을 거쳐 [MONEY]의 지시부에 'little'을 기입하였다.

다음 (18)과 (19)는 각각 보편양화적 의미를 갖는 'whoever'와 한정적 또는 보편양화적 의미를 갖는 'who'에 관한 예문이다.

(18) a. Whoever does that should admit the fault. ('Anyone who does that...')
b. [(λx) [PERSON: *x] ← (AGNT) ← [DO] → (OBJ) → [⊤: #that]: #∀] ← (AGNT) ← [ADMIT] → (OBJ) → [FAULT: #]]

이제, 관계부사 *when, where, why, how*가 이끄는 절이 명사절로 사용될 경우를 논하고자 한다. 이들은 *time, place, reason, way* 등 일반적인 유형의 선행사 의미를 관계사가 포함함으로써 명사적 관계절이 되는 경우인데, 이 관계부사도 'ever' 형태가 아니면 대체로 한정적 의미이다.

(19) a. Seoul is where he is staying.
b. = Seoul is the place (where[=at which][=that]) he is staying.
c. [CITY: seoul*y]
[(λx) [PLACE: *x] ← (LOC) ← [STAY] ← (STAT) ← [MALE: #]: #*y]
(20) a. Seoul is the city where he is staying.
b. [CITY: seoul*y]
[(λx) [CITY: *x] ← (LOC) ← [STAY] ← (STAT) ← [MALE: #]: #*y]

위 예문 (19a)의 *where*는 선행사의 의미를 포함한 관계사로서 (19b)와 같이 선행사가 일반적인 개념인 [PLACE]를 가지므로 (19c)의 개념도식으로 표기된다. (20)의 경우는 PLACE의 하위유형인 CITY로 제한된 경우이므로 개념 [PLACE]대신 [CITY]로 대체된다.

다음 (21)의 관계사 *when*에 관한 개념도식도 위 (19)와 (20)의 *where*와 같은 원리로 표기된다. 아울러 (22)에서처럼 *time*보다 하위유형인 *hour*로 제한될 경우는 개념도식에서 [TIME]의 자리에 [HOUR]로 대체하면 된다.

(21) a. I checked when she was here.

b. = I checked the time (when(=at which)(=that)) she was here.
c. [PERSON: #I] ← (AGNT) ← [CHECK] → (OBJ) → [(λx) [TIME: *x]
← (PTIM) ← [[FEMALE: #] → (LOC) → [PLACE: #here]]: #]

(22) a. I checked the hour (when) she was here.
b. [PERSON: #I] ← (AGNT) ← [CHECK] → (OBJ) → [(λx) [HOUR: *x]
← (PTIM) ← [[FEMALE: #] → (LOC) → [PLACE: #here]]: #]

아래 (23), (24)는 관계부사 *why*와 *how*가 선행사의 의미를 포함하여 명사적 관계절로 사용된 것을 개념도식으로 보여준 것이다.

(23) a. This is why he did it.
b. = This is the reason (why(=for which)(=that)) he did it.
c. [⊤: #this*x]
[(λy)[REASON: *y] ← (RESN) ← [[MALE: #] ← (AGNT) ← [DO] →
(OBJ) → [⊤: #it]]: #*x]

(24) a. That was how they treated her.
b. = That was the way (in which(=that)) they treated her.
c. [⊤: #that*x]
┌*(MANR)→[WAY:*y]
[(λy)[[PERSON: #{*}they] ← (AGNT) ← [TREAT] → (OBJ) →
[FEMALE: #]: #*x]

'ever'형태인 복합관계 부사절의 보편양화사적 의미 기술은 복합관계 대명사절의 경우와 같이 λ-표현의 지시부에 #∀로 표기하는데, 다음의 복합관계절 항목에서 다루고자 한다.

2. 복합관계부사절

바로 앞에서는 명사적 관계절의 개념도식 기술을 한정의미와 보편양화사적 의미에 초점을 두고 설명하였는데, 여기에서는 명사적 관계절 중 형태상 'ever'가 붙은 관계절서의 복합관계절의 문법적 기능에 따른 개념도식 기술 방법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복합관계절은 그 문장에서의 문법적 기능으로 보면 명사절 또는 부사절로 사용된다. Izvorski(2000)는 부사절로서의 복합관계절은 항상 양보(concessive)의 의미로 해석된다고 본다. 그러나 복합관계대명사절은 부사절로 사용될 경우 양보의 뜻을 내포하며, 복합관계부사절은 부사절로 사용될 때, *whenever*와 *wherever*는 시간과 장소만을 나타낼 경우와 여기에 양보의 뜻까지 내포할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however*가 이끄는 복합관계부사절이 부사절로 사용될 때는 양보만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본 연구

에서는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양보의 개념관계인 (CONS)를 도입하여 기술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문맥에 적합한 개념관계를 이용하여 설명할 것이다.

다음 (25)와 (26)의 예문들은 복합관계대명사절이 양보를 내포한 부사절로 사용된 경우로서 양보의 개념관계인 (CONS)가 부사절과 주절이 제시하는 두 상황을 연결한다.

(25) a. Whoever may come, he welcomes him.
b. [[MALE: #] ← (AGNT) ← [WELCOME]] → (CONS) → [(λx) [PERSON: *x] ← (AGNT) ← [COME]: #∀]
(26) a. Whatever he may say, it is true.
b. [[(λx) [⊤: *x] ← (OBJ) ← [SAY] → (AGNT) → [MALE: #]: #∀]] → (CONS) → [[*x] → (ATTR) → [TRUE]]

아래 (27), (28)과 같은 예문의 경우에는 두 절 사이의 동일지시관계가 없으며, 복합관계절은 또한 양보의 부사절 역할을 한다.

(27) a. Whatever you do, you will succeed.
b. [[(λx)[*y] ← (AGNT) ← [DO] → (OBJ) → [⊤:*x]: #∀]] → (CONS) → [[PERSON: #you*y] ← (AGNT) ← [SUCCEED]]
(28) a. Whichever you decide, you are thoughtful.
b. [[(λx)[*y] ← (AGNT) ← [DECIDE] → (OBJ) → [⊤: *x]: #∀]] → (CONS) → [[PERSON: #you*y] → (CHRC) → [THOUGHTFUL]]

아래 (29)와 (30)은 *wherever*가 이끄는 복합관계부사절의 예이다.

(29) a. He travelled wherever he liked.
b. [MALE: #*x] ← (AGNT) ← [TRAVEL] → (DEST) → [(λy) [*x] ← (EXPR) ← [LIKE] → (OBJ) → [PLACE: *y]: #∀]
(30) a. Wherever you may go, I will follow you.
b. [(λx) [PERSON:#you*y] ← (AGNT) ← [GO] → (DEST)→ [PLACE:*x]: #∀]] → (CONS) → [[PERSON: #I] ← (AGNT) ← [FOLLOW] → (OBJ) → [*y]]

(29)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절이고 (30)은 양보의 뜻을 내포한 부사절이므로 (29)는 목적지의 개념관계 (DEST)로, (30)은 양보의 개념관계 (CONS)로 두 절이 연결된다. 아래 (31)과 (32)는 *whenever*가 이끄는 복합관계부사절의 예이다.

(31) a. Whenever I visited him, he was not at home.
b. [(λy)[TIME: *y] ← (PTIM) ← [[PERSON: #I] ← (AGNT) ← [VISIT] → (OBJ) → [MALE: *x]]: #∀] ← (PTIM)←[¬[[*x] → (LOC) → [HOME] ← (POSS) ← [*x]]]

(32) a. Whenever you may visit him, you will find him at home.
b. [(λz)[TIME: *z] ← (PTIM) ← [[PERSON:#you*x] ← (AGNT) ← [VISIT] → (OBJ) → [MALE:*y]]: #∀] → (CONS) → [[*x] ← (EXPR) ← [FIND] → (THME) → [[*y] → (LOC) → [HOME] ← (POSS) ← [*y]]]

위 (31)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이므로 시간(point in time)을 나타내는 개념관계인 (PTIM)으로 두 절이 연결될 수 있으며, (32)는 시간외에 양보의 뜻을 내포한 부사절이므로 양보의 개념관계인 (CONS)를 이용하여 기술할 수 있다. 다음 (33)의 *however* 부사절도 (32)의 예와 마찬가지로 양보의 개념관계를 필요로 하는 예이므로 (CONS)를 이용하여 두 절을 연결할 수 있다.

(33) a. However hard I tried, I couldn't solve the question.
b. [(λy)[PERSON: #I*x] ← (AGNT) ← [TRY] → (MANR) → [HARD:*y]:# ∀] → (CONS) → [¬[(PSBL) → [[*x] ← (AGNT) ← [SOLVE] → (OBJ) → [QUESTION: #]]]

복합관계형용사는 관계사가 명사 앞에서 한정사의 구실을 하는 관계형용사에 'ever'가 붙은 형태를 말한다. 관계형용사에는 *which*와 *what*이 있으며, 복합관계형용사란 여기에 'ever'가 붙은 것을 말한다.

아래 (34)와 (35)는 각각 복합관계형용사 *whatever*와 *whichever*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절이 명사절로 사용된 예이다.

(34) a. She ate whatever food she made.
b. = She ate all food that she made.
c. [FEMALE: #*y] ← (AGNT) ← [EAT] → (OBJ) → [(λx) [FOOD: *x] ← (RSLT) ← [MAKE] → (AGNT) → [*y]: #∀]

(35) a. He read whichever book he liked.
b. = He read any book that he liked.
c. [MALE: #*y] ← (AGNT) ← [READ] → (OBJ) → [(λx)[BOOK: *x] ← (OBJ) ← [LIKE] → (EXPR) → [*y]: #∀]

즉, (34)에서는 'whatever food she made'절이 ate의 목적절이며, (35)에서는

'whichever book he likes'절이 read의 목적절이므로 명사절로 사용된다. 그러므로 이들 절은 각각 [EAT]과 [READ]에 (OBJ)로 연결된다.

반면, 다음 (36)은 복합관계형용사 *whatever*를 포함하는 절이 양보의 뜻을 갖는 부사절로 사용된 예이므로 이 두 절은 개념관계 (CONS)로 연결될 수 있다.

(36) a. Whatever money you have, you should not waste it.
b. [(λx)[MONEY: *x] ← (POSS) ← [PERSON:#you*y]: #∀]] → (CONS) →[—[[*y] ← (AGNT) ← [WASTE] → (OBJ) → [*x]]]

3. 의문사절과 명사적 관계절의 의미 차이 기술

의문사절은 알려지지 않은 정보의 공백이 있어, 이것이 wh-요소로 표현되며 그 공백을 채우는 데 중심이 있다. 반면에 명사적 관계절은 정보의 공백이 없어 그 공백을 채우는 문제에는 관심이 없다. 그 정보는 'I took what was on the kitchen table'에서와 같이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 알려져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의문사절의 의미와 관계절의 의미로 모두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Sowa(1992:41)는 개념도식에서 의문문을 기술하는 의문도식(query graph)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이용하여 의문사절을 표기함으로써 관계사절의 표기와 구별할 수 있다.

다음 (37)-(39)는 Quirk 외(1985:1061)가 예시한, 의문사절과 관계절로 모두 해석될 수 있는 중의성을 지닌 문장들인데 이들의 의미를 개념도식으로 다르게 기술한다.

(37) a. Do you remember when we got lost?
b. [PERSON: #you] ← (EXPR) ← [REMEMBER] → (OBJ) → [(λx)[PERSON: #{*}we] ← (STAT) ← [LOST] → (PTIM) → [TIME: *x]: #]
c. [PERSON: #you] ← (EXPR) ← [REMEMBER] → (OBJ) → [[PERSON: #{*}we] ← (STAT) ← [LOST] → (PTIM) → [TIME: ?]]

위 (37a)는 *remember*의 목적절을 관계절로 해석할 경우 'Do you remember the occasion, the time we got lost?'와 같은 뜻으로 의역되는데 개념도식으로 기술하면 (37b)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이 부분을 의문사절로 해석할 경우 'Do you remember when it was that we got lost?'와 같이 의역되므로 (37c)와 같이 시간에 대한 지시체, 즉 [TIME: ?]를 찾고자 하는 의문도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38) a. They asked me what I knew.
⌜'(RCPT) → [*y]
b. [PERSON: #{*}they] ← (AGNT) ← [ASK] → (OBJ) → [QUESTION]

→ (CONT) → [(λx)[PERSON: #I*y] ← (EXPR) ← [KNOW] → (OBJ)
→ [⊤: *x]: #{*}]
↱(RCPT) → [*y]
c. [PERSON: #{*}they] ← (AGNT) ← [ASK] → (OBJ) → [QUESTION]
→ (CONT) → [[PERSON: #I*y] ← (EXPR) ← [KNOW] → (OBJ) →
[⊤: ?]]

위 (38a)의 동사의 목적절을 관계절로 해석하여 이를 'They asked me the things that I knew.'와 같이 의역할 때 (38b)의 개념도식으로 기술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을 의문사절로 해석하여 'They asked me, "What do you know?"'와 같이 의역할 때엔 (38c)의 의문도식으로 기술할 수 있다. (38b, c)의 도식에서 (CONT)는 내용(content)의 뜻을 지니는 개념관계유형이다. (CONT)는 이들 예문에서 질문과 질문의 내용을 연결한다. (38c)에서는 [KNOW]의 (OBJ)로 [⊤: ?]를 둠으로써 찾고자 하는 개념의 유형에 제한을 두지 않음을 보여준다.

(39) a. What she wrote was a mystery.
b. [MISTERY: *y]
[(λx)[⊤:*x] ← (RSLT) ← [WRITE] → (AGNT) → [FEMALE: #]: #*y]
c. [FEMALE: #] ← (AGNT) ← [WRITE] → [RSLT] → [MISTERY]
d. ¬[[PERSON: #I] ← (EXPR) ← [KNOW] → (OBJ) → [[⊤: ?] ←
(RSLT) ← [WRITE] → (AGNT) → [FEMALE: #]]]

위 (39a)의 주어절 what she wrote를 관계절로 해석하면 '그녀가 쓴 것은 추리소설이었다'라는 뜻이 된다. 이것을 개념도식으로 나타내면 (39b)와 같다. 또한 (39a)는 결국 'She wrote a mystery'라는 말로 의역될 수 있는데 이것을 개념도식으로 나타내면 (39c)와 같다. (39b)와 (39c)의 개념도식이 나타내는 의미 차이를 보면, 동일지시 표시로 두 개념을 연결한 (39b)는 그녀가 쓴 것들의 집합 중 특정화된 그것이 추리소설이었다는 뜻으로서 초점은 *a mystery*이며, 'She wrote something'이 전제된 상황에서 *What she wrote*는 화제(topic)이다. (39c)는 '그녀가 추리소설 한 편을 썼다'는 사실만을 전달할 뿐이다.

Quirk 외(1985:1061)는 (39a)의 주어절을 의문사절로 해석할 경우 'I don't know what she wrote'로 의역하였는데, 개념도식으로의 기술에서 (39d)와 같이 의문도식으로 표시한다.

그러나 다음 (40)과 (41)의 예문은 위와 같은 두 가지 해석의 중의성이 없다. 왜냐하면 'wh-ever'형태의 절은 의문사절로는 사용되지 않고 오직 복합관계절로만 해석되기 때문이다.

(40) a. They asked me whatever I knew.

⌜'(RCPT) → [*y]

b. [PERSON: #{*}they] ← (AGNT) ← [ASK] → (OBJ) → [QUESTION] → (CONT) → [[(λx)[⊤: *x] ← (OBJ) ← [KNOW] → (EXPR) → [PERSON: #I*y]: #∀]]

(41) a. He was loved wherever he went.

b. [MALE: #*x] ← (OBJ) ← [LOVE] → (LOC) → [(λy) [PLACE: *y] ← (DEST) ← [GO] → (AGNT)→[*x]: #∀]

위 (40a)의 *whatever*절은 명사적 용법으로 쓰인 복합관계절이므로, 이는 'They asked me all that I knew'로 의역되며 이것을 개념도식으로 나타내면 (40b)와 같다. 위 (41a)의 *wherever*절은 복합관계부사절로서 부사절로 사용되었다. 그래서 'He was loved at any place that he went'로 의역되어 (41b)와 같은 개념도식으로 나타내었다. 위 예문 (37)-(39)에서 의문사절과 관계절로 모두 해석될 수 있는, 중의성을 지닌 문장들을 개념도식으로 구별하여 기술한 바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관계절이 문장 속에서 명사절로 해석될 수도 있고 부사절로 해석될 수도 있는 중의성을 지닌 경우를 기술한다.

어떤 동사가 자동사 또는 타동사로 사용될 수 있을 때,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절이 부사절로 해석될 수도 있고 타동사의 목적절인 명사절로 해석될 수도 있는 중의성이 있다. 이에 대한 Quirk 외(1985:1059)의 예문을 아래에 제시하고 기술한다.

(42) a. She remembered when she saw me.

b. [FEMALE: #*y] ← (EXPR) ← [REMEMBER] → (OBJ) → [(λx)[TIME: *x] ← (PTIM) ← [[*y] ← (EXPR) ← [SEE] → (OBJ) → [PERSON: #I]]: #]

c. [[FEMALE: #*y] ← (EXPR) ← [REMEMBER]] → (PTIM)→[(λx) [TIME: *x] ← (PTIM) ← [[*y] ← (EXPR) ← [SEE] → (OBJ) → [PERSON: #I]]: #]

위 (42a)의 *when she saw me*를 타동사로 쓰인 *remembered*의 목적절인 명사절로 해석하면 'She remembered the time (when) she saw me'와 같이 의역된다. 그러므로 (42b)와 같은 개념도식으로 기술하였다. 그러나 (42a)의 *remembered*를 자동사로 해석하면 *when she saw me*는 부사절이 되어서 (42a)는 '그녀가 나를 보자 기억이 살아났다(= She remembered at the time (when) she saw me)'와 같이 의역된다. 이 의역을 (42c)와 같이 개념도식으로 나타내어 이러한 중의성을 구별하여 표시하였다.

Ⅳ. 결 론

이 연구는 영어 명사적 관계절의 의미적 특성을 살피고 이를 개념도식을 이용하여 기술하고자 하였다. 명사적 관계절의 의미를 특정/비특정 비한정 기술로 보는 Quirk 외의 견해와는 달리 Jacobson, Dayal 등에 의한 최근의 연구들을 살펴볼 때, 명사적 관계절을 한정기술로 보는 것이 일반적 경향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도 명사적 관계절을 한정기술로 보고, 이를 개념도식을 통해 기술하고자 하였다. 이렇듯 한정기술로서의 명사적 관계절을 바탕으로 한 개념도식에서는, 단순명사적 관계절이 한정의 의미만을 갖는 경우에는 한정표지 #를 도입하여 그 한정성을 기술하였으며, 보편양화적 의미를 갖는 경우에는 한정표지에 덧붙여 보편양화표지 ∀를 아울러 도입함으로써 한정성과 보편양화적 의미를 함께 기술하고자 하였다. 'ever'가 붙은 복합관계절의 경우에는 한정성과 보편양화의 의미를 함께 갖는 것으로 기술하였다. 또한, 부사절의 기능을 하는 복합관계절의 의미도 살펴보았다. 복합관계부사절은 양보의 의미로 주절과 연결될 경우, 양보의 개념관계 (CONS)를 도입하여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그 표면적 형태상으로는 차이가 없는 의문사절과 명사적 관계절 사이의 의미차이를 기술하고자 하였다. 정보의 공백이 있는 의문사절은 의문도식을 통해 기술하였으며, 이러한 도식은 그 정보공백을 메울 수 있는 어떠한 개념이 요구된다.

이와 같이 이 연구에서는 개념도식을 통하여 영어 명사적 관계절의 의미를 기술함으로써 관계구문의 의미를 적절하고 일관성 있게 기술할 수 있음을 보였다.

참 고 문 헌

Dayal, V. (1995). Quantification in correctives. In Bach, E. (Ed.), *Quantification in natural language* (pp. 179-205). Kluwer: Dordrecht.

Dayal, V. (1997). Free relatives and ever: Identity and free choice readings. In Proceedings of SALT VII, 99-116.

Iatridou, S. & Varlakosta, S. (1996). A crosslinguistic perspective on pseudoclefts. In *Proceedings of NELS 26* (pp. 117-131).

Izvorski, R. (2000). Free adjunct free relatives. In *Proceedings of WCCFL 19* (pp. 232-245).

Jacobson, P. (1995). On the quanificational force of English free relatives. In Bach, E. (Ed.), *Quantification in natural language* (pp. 451-486). kluwer: Dordrecht.

Müller, S. (1998). An HPSG-analysis for free relative clauses in German. In *Proceedings of Formal Grammar* pp. 179-188.

Quirk, R., Greenbaum, S., Leech, G. & Svartvik, J. (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don: Longman.

Rebushi, G. (2001). Semi-free relative clauses and the DP hypothesis: Basque evidence and theoretical consequences. In *Proceedings of IATL 8* (pp. 55-64).

Riemsdijk, H. van. (2000). Free relatives. In The Syntax Companion (SynCom), *an (electronic) encyclopaedia of syntactic case studies*. LingComp Foundation.

Sowa, J. F. (1984). *Conceptual structures: Information processing in mind and machine*. California: Addison-Wesley Publishing Co., Inc.

Sowa, J. F. (1997). *Knowledge representation: Logic, philosophical, and computational foundations. to be published by* Boston, MA: PWS Publishing Co.

Vogel, R. (2001). Towards an optimal typology of the free relative construction. In Grosu, A. (Ed.), *Papers from the 16th Annual Conference and from the Research Workshop of the Israel Science Foundation* (pp. 107-119).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College

조 길 호
청운대학교 영어과
350-701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남장리 산 29
E-mail: choycs@chungwoon.ac.kr

Received in May, 2003
Reviewed in June, 2003
Revised version received in July, 2003